

계열사 소식

쌍용컴퓨터

BPCS 관련 기술도입 승인 받아



崔 丙 恒 사장

쌍용컴퓨터 (대표 崔丙恒)가 최근에 과학기술처로부터 종합 생산관리 소프트웨어인 (Business Planning and Control System) 관련 기술도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同社는 기술제공사인 SSA (Systems Software Associates) 사로부터 BPCS 관련 소스 및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다.

同社가 도입한 BPCS는 제조 및 유통분야 기업의 경영관리를 위한 통합소프트웨어.

BPCS의 특징은 생산·판매·재무분야와 관련된 20여개의 모듈이 상호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모듈별로 단계적 도입이 가능한 점이다.

삼성데이타시스템

PC VAN사업 착수



林 慶 春 사장

삼성데이타시스템 (대표 林慶春)이 금년부터 그룹 계열사 및 중소기업을 위한 PC VAN 사업에 착수키로 결정, 최근 VAN사업의 본격화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장기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同社는 이에 따라 자본금 18억을 증자하고, VAN사업 추진의 1단계로 IBM 4381 2대를 우선 설치하고 계열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STN을 통한 PC VAN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정보전달 서비스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EDI서비스와 정보은행 서비스를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일담배 수매전산시스템, 특허청에 등록 출원

한편, 同社는 일담배의 수량을 자동측정 계산하는 일담배 수매전산시스템 실용신안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이 시스템은 중앙제어를 비롯하여 감정합의기, 전자저울, 계산서인쇄기 및 전원등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배의 중량측정과 감정, 창고의 입출고, 현황 등의 완전 자동처리가 가능하다.

현대전자

HA 시스템 개발, 판매



鄭夢憲 사장

현대전자(대표 鄭夢憲)가 홈 오토메이션(HA)시스템을 개발, 판매를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주택내의 각종 기기를 유기적으로 가동시켜 실내외의 화재나 방범 가스누출 등을 자동감지할 수 있으며 외출시 외부에서도 가정용 전자제품의 작동을 전화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과전류나 이상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 오동작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한국데이터통신

각종 정보통신 수요에 대비한 시설 확충



李膺孝 사장

한국데이터통신(사장李膺孝)이 정보통신 수요의 급증에 대비, 금년중에 기본통신시설을 확장기로 했다.

同社は 공중정보통신망서비스(DNS) 수요에 대비하여 대구와 광주에 패킷교환 시설을 증설하고, 서울 10개소 및 지방도시 10개소 등 총 20개소에 다중화

장치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통신회선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서울 광주에 기존시설을 늘리고 인천, 춘천, 마산, 제주, 전주 등 5개 지역에는 T1급 통신회선망을 새로 갖추기로 했다.

이외에도 인텔사트의 위성통신을 이용한 국제고속디지털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안에 관련위성지구국 설치 및 서비스를 개발 국제정보통신 수요에 대비키로 했다.

대우통신

PC 수출 50만대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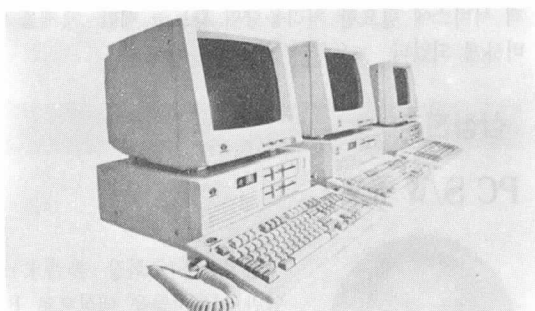


朴成圭 사장

대우통신(대표 朴成圭)이 국내 최초로 지난해 퍼스널컴퓨터 수출 50만대를 돌파했다.

同社は 지난 85년 독자기술로 개발한 16비트 퍼스컴 모델-D로 미국시장 진출에 성공, IBM PC/AT 호환기종 모델-D2 32비트 퍼스컴 모델-D3 등을 개발 수출해 왔다.

한편, 同社は 앞으로도 계속하여 랩톱PC, IBM PS/2 호환기종 등의 신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수출시장도 다변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좌로부터 PRO-5000(MODEL-D3), PRO-3000(MODEL-D2), PRO-2000(MODEL-D)

에스·티·엠

본격적인 FM 사업 펼쳐



金永泰 사장

에스·티·엠(대표 金永泰)이 그룹내 전산실 수탁관리에 이어 전산처리업무 대행 영역을 非그룹사로 확대, 본격적인 전산실수탁관리사업(Facilities Management)을 펴나갈 계획이다.

同社は 올해에 증권·보험 등 금융기관과 전자·전기·화학분야의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FM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해외정보처리 사업에도 진출, 정보처리 기술과 고급 전산인력의 수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내 최초 「IBM 3090-400E」 초대형 시스템 설치

同社は 또한 이번달 초 국내 최초로 통합전산실의 하드웨어로 「IBM 3090-400E」 초대형 시스템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급속한 사업신장과 정보처리용역이 날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 대비,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정보처리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키로 한 IBM 3090-400E는 보유중인 IBM 3090-200E 용량을 배가시킨 초대형 시스템으로 처리속도는 57.3MIPS, 주기억용량은 384MB이다.

同社は 이와같은 대형시스템의 보유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도모와 완벽한 비상시 대체수단을 확보케 되었다.

또한 시스템 개발용과 고객의 현 업무처리용 기계자원의 이원적 분리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추가 고객 서비스에 필요한 처리용량의 확보등 제반 체제를 완비하게 되었다.

16비트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사용자들이 직접 개발한 업무·교육·가사·게임·과학기술용 등의 미발표 작품을 내용으로 한다.

유니온시스템

직기시설자동화 기술개발



宋炳南 사장

유니온시스템(대표 宋炳南)이 최근 학계와 공동연구로 직기시설 자동화 기술을 개발 완료하고 기업체에의 기술전수를 추진하고 있다.

同社가 이번에 개발한 직기시설 자동화 기술 개발내용은 직기자동운전 감시시스템·효율 분석 전문가시스템·결함 검출을 위한 패턴 인식기술·무늬디자인 시스템 등이다.

삼성전자

PC S/W 공모



姜晋求 부회장

삼성전자(부회장 姜晋求)는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PC 소프트웨어를 이달 28일까지 공모한다.

同社の 이번 공모는 8비트와

編輯後記

올해는 년초에 있었던 회원사를 위한 체신부장관초청 조간간담회에서부터 협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리란 느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협회에서는 VAN활성화를 위한 회선사용제도 개선에 대해 법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당분간은 회선사용제도에 대한 현행법의 유권해석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업계가 지적하고 개정을 요망하는 내용은 시간을 두고 개선될 것이다.

1월 28일 개최된 통신시장 대외개방에 대한 민·관 협의회에서 업체로부터 개진된 의견이 통상압력에 대한 당국의 대처방안에 도움 및 반영이 되기를 기대한다. 협의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